■ 고사성어 ⑤

震怖式書焚

분서갱유(焚書坑儒)

책을 불사르고 선비를 산 채로 구덩이에 파묻어 죽인다는 뜻. 곧 ①진(秦) 나라 시황제(始皇帝)의 가혹한 법[荷法]과 혹독한 정치[酷政]를 이름.②학자·학문이 정치적 박해·탄압을 받음의비유.

기원전 221년, 제 (藥)나라를 끝으로 6국을 평정하고 전국 시대를 마감한 진나라 시황제 때의 일이다. 시황제는 천하를 통일하자 주(周)왕조 때의 봉 건 제도를 폐지하고 사상 처음으로 중 앙집권 (中央集權)의 군현제도(郡縣 制度)를 채택했다.

군현제를 실시한지 8년이 되는 그해 (B.C. 213) 어느 날, 시황제가 베푼 함양궁咸陽宮)의 잔치에서 박사(博士)인 순우월 (淳于越)이 '현행 군현 제도하에서는 황실의 무궁한 안녕을 기하기가 어렵다'며 봉건제도로 개체할 것을 진언했다. 시황제가 신하들에게 순우월의 의견에 대해 가부를 묻자 군

현제의 입안자(立案者)인 승상 이사 (李斯)는 이렇게 대답했다.

"봉건시대에는 제후들 간에 침략전 이 끊이지 않아 천하가 어지러웠으나 이제는 통일되어 안정을 찾았사오며, 법령도 모두 한 곳에서발령(發令)되고 있나이다. 하오나 옛 책을 배운 사람들 중에는 그것만을 옳게 여겨 새로운 법 령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선 비들이 있사옵니다. 하오니 차제에 그 러한 선비들을 엄단하심과 아울러 백 성들에게 꼭 필요한 의약(醫藥)・복서 (卜筮) ·종수(種樹 : 농업)에 관한 책과 진나라 역사서 외에는 모두 수거하여 불태워 없애 버리소서."시황제가 이사 의 진언을 받아들임으로써 관청에 제 출된 희귀한 책들이 속속 불태워졌는 데 이 일을 가리켜 '분서'라고 한다. 당시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이므로, 책은 모두 글자를 적은 댓조각을 엮어 서 만든 죽간(竹簡)이었다. 그래서 한



由江 權丞世

·개인전4회, 초대그룹전20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 가, 운영위원, 심사위원 역임 ·영남미술협회 회장 ·유강 서화연구원 원장

경북 영주생 검교공파 34세

번 잃으면 복원할 수 없는 것도 많았

이듬해(B.C. 212) 아방궁(阿房宮)이 완성되자 시황제는 불로장수의 신선 술법(神仙術法)을 닦는 방사(方士)들 을 불러들여 후대했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노생(盧生)과 후생(候生)을 신임했으나 두 방사는 많은 재물을 사취(詐取)한 뒤 시황제 의 부덕(不德)을 비난하며 종적을 감 춰 버렸다. 시황제는 진노했다. 그 진 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시중 의 염탐꾼을 감독하는 관리로부터 '폐 하를 비방하는 선비들을 잡아 가뒀다' 는 보고가 들어왔다.

시황제의 노여움은 극에 달했다. 엄 중히 심문한 결과 연루자는 460명이나 되었다.

시황제는 그들을 모두 산 채로 각각 구덩이에 파묻어 죽였는데 이 일을 가리켜 '갱유'라고 한다.



복수불분(覆水不盆)

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다는 뜻. 곧 ①한번 떠난 아내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음의 비유. ②일단 저지른 일은 다시 되돌릴 수 없음의 비유.

주(周)나라 시조인 무왕(武王: 發) 의 아버지 서백(西伯: 文王)이 사냥을 나갔다가 위수(渭水: 황하의 큰 지류) 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 한 초라한 노인을 만났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학식이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서백은 이 노인이야말로 아 버지 태공(太公)이 '바라고 기다리던 [待望]' 주나라를 일으켜 줄 바로 그 인물이라 믿고 스승이 되어 주기를 청 했다. 이리하여 이 노인, 태공망(太公 望: 태공이 대망하던 인물이란 뜻)

여상[呂尚: 성은 강(姜)씨, 속칭 강 태공)은 서백의 스승이 되었다가 부왕 의 태부(太傅: 태자의 스승)·재상을 역임한 뒤 제 (齋)나라의 제후로 봉해 졌다. 태공망 여상은 이처럼 입신 출세 했지만 서백을 만나기 전까지는 끼니 조차 제대로 잇지 못하던 가난한 서생 이었다.

,ㅆ더. 그래서 결혼 초부터 굶기를 부자 밥 먹듯 하던 아내 마(馬)씨는 그만 친청 으로 도망가고 말았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그 마씨가 여상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 했다. "전엔 끼니를 잇지 못해 떠났지 만 이젠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돌아왔어요"

그러자 여상은 잠자코 곁에 있는 물 그릇을 들어 마당에 엎지른 다음 마씨 에게 말했다.

"저 물을 주워서 그릇에 담으시오" 그러나 이미 땅 속으로 스며든 물을 어찌 주워 담을 수 있단 말인가.

마씨는 진흙만 약간 주워 담았을 뿐 이었다. 그러자 여상은 조용히 말했다.

"'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고[覆水不返盆]' 한번 떠난 아내는 돌아올 수 없는 법이오."

권병국상주종친회장

이나라 농업 수도로 자처하며 인구 10 만여명에 '누에고치' '곶감' '쌀'이 많아 삼백(三白)의 도시로 불리는 상주에서, 지난 1976년 7월 권오봉씨가 주축이 되어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상주종친회가 출범 했다.

오봉회장이 2대회장에 연임되어 종친회기초 기반조성에 초석을 다졌으며, 3대회장에 권태석씨가 선출되어 6대까지 연임되면서 종친회 조직확대와 활성화에박차를 가했으며, 7대회장에 권오선씨,이어 7~8대회장에 권영균씨가 선출되어투철한 숭조정신과 솔선수범으로 상주지역족친과 타지역 일가친척,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상주종친회관 건립 기금을 모

금해 숙원이었던 상주종친회관을 마련하 는데 크게 그여했다.

10대회장에 권우집씨 11대(권중문), 12 대(권종구), 13대(권윤희), 이어 14·15·16 대 회장으로 연임된 권정환회장은 종친 회 조직확대와 종원활성화, 회원 배가운 동에 크게 기여했으며, 제3대 상주시의원으로서 상주지역 균형발전과 복리증진에 앞장서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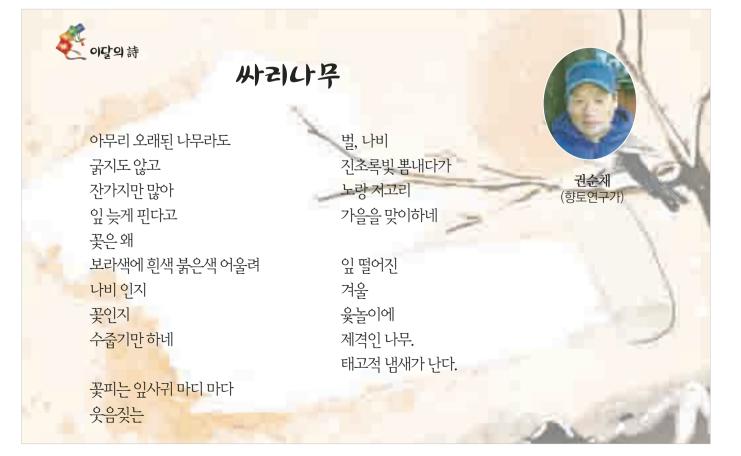
더불어 정환회장의 동생인 권정택씨도 통일주체대의원, 초대 상주시의회의원으 로서 상주의회 발전에 공헌하기도 했다. 17대(권재철), 이어 2010년 3월 제18대회 장에 선출된 권병국(75·상주33世·복야공 파)는 19~20대 회장으로 연임되면서 38여



▲권병국 상주종친회장

년간의 오랜 역사 와 전통을 자랑하 면서 시·아조춘추 향사 참제, 신년교 례회, 정총개최, 일 가 길·흉사등에 참 석하면서 족친 모 두가 한가족이 되

어 종친회 활성화에 박치를 가하고 있다. 한편 병국회장은 상주농잠고를 졸업하고 상주大 최고경영자 과정과 미국 켈리 포니아大 지역개발과정을 수료했으며, 상 주시새마을지도자·농촌지도자 협의회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감사 등을 지냈으며 현 상주상업농경영 지사장, 상주시민신문 감사 등을 맡아 크게 활동하고 있으며, 새마을근면훈장外 표창장 다수가 있으며 슬하에는 고 천대자여사 사이에 4남매를 두고 있다.



白頭山及天池遊覽

백두산 천지유람

白頭山上駅風吹(백두산상별풍취) 雲捲周邊淑氣移(テ권주변숙기이) 緑水天池仙境若(록수천지선경약) 雄峯丘壑景觀奇(テ봉구학경관기) 巨湖遠派三江致(거호원파삼강치) 峻嶺長岐兩國陂(テ령창기양국피) 曾見龍王吾所願(증견용왕오소원) 偉乎秀麗眼前披(위호수려안전피)

백두산위엔 산들바람이 불어 구름걷친 주변에는 맑은 기운으로 옮겨지네 웅장한 봉우리와 언덕구렁에는 경관이 기이하네 물맑은 천지에는 신선이 있는 곳과 같고 큰호수 멀리 나누어 三江을 이루었고 높은 산봉우리는 길게 두갈래되어 두나라의 언덕이 되었네 일찍이 용왕 보는 것이 나의 소원이었는데

永嘉后人 權相穆 拙稿

거룩하도다 뛰어난 경치 내눈앞에 펼쳐졌네

권문의 노래



1절 權太師中庸之道 肇啓景運 이루시고 始祖님의 炳幾達權 賜姓으로 이어졌네 천 등 산 불 밝히고 鳳凰명당에 잠드시니 四始의 빛난 가문 百萬巨族 이루었네

2절

千年歲月 權門歷史 뒤 돌아 보올적에 先祖님들 빛난 名聲 온 나라가 자자하고 國難危機 守護하여 祖國暢達 이룩하니 太師公 精氣받아 名門巨族 이루었네

(후렴)

오 호라祖上蔭德 영원토록 發福하사 순풍에 닻을 올려 영원히 항해하니 權門榮華 길이길이 만세토록 빛나리 만세만세 만만세 權門一家 만만세 권문일가 만만세

中庸之道: 過不及이 없고 不偏不黨한 德과 道를 겸비한 태 사공(天人合一을 설한 子思의 中庸을 인용)

肇啓景運: 시초조, 열계, 밝을경, 새로운 운, 빛나는 새로 운 국운을 처음으로 열음(陽村 權近선생이 조선 조 개국을 찬양한 글을 인용하여 시조님께서 고 려의 삼한 통일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찬양함)

炳幾達權: 고려태조카 "幸은 幾微에 밝고(慧眼) 權道에 通達하였다"하며 權氏로 賜姓함

揖 拜禮의 小考

禮節과 法道

※ 三江→송화강, 두만강, 압록강을 말함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정 사회 국가 (家庭 社會 國家)에는 예절(禮節)과 법 도(法道)가 있다. 이 예절(禮節)과 법도 (法道)를 잘 알고 잘 실행(實行)하며 잘 비켜가기 위하여 너 나 우리뿐만 아니 라 인류(人類)가 고금(古今) 없이 노력 (努力)해 왔다. 예절(禮節)에 대해 제한 된 시간에 모두 거론(學論)할 수가 없기 에 여기서는 읍 배례(揖 拜禮)에 대하 여 말씀드리려 한다. 우리가 생활(生活) 하는 공간(空簡)을 크게 가정 사회 국가 (家庭 計會 國家)로 나누고 그 속에서 생 활하는 목표(目標)의 최고덕목(最高德 目)을 충(忠)과 효(孝)로 논리(論理)해 서 밝혔다. 나라에 충(忠)을 하고 부모 (父母)에 효(孝)하는 것이 그토록 귀하 고 자랑스러운 결과로 나타나기 전에 충 성(忠誠)을 다하고 효성(孝誠)을 다하 는 그 사람의 정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 다. 이러한 정성이 없는 효행(孝行)이나 국가사회에 봉사(奉仕)하는 것은 마치 마음 쓰지 않고 하는 일과 같다. 즉 마음 에 두지 않고 보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들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두지 않고 먹으면 음식을 먹어도 맛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현 (聖賢)은 가르쳤다. 예절(禮節)을 행하 거나 법도를 준수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 이 해야 할 일이며 익히 알고 있는 일들 이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감독자가 있을 때만 잘 행하고 잘 지키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감시 감독하 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 력(努力)해야 될 것이다.

恭敬하는 마음과 揖禮

여기서 읍배하는 예를 말하기 전에 읍 배 예는 모든 인간 생활과 가운데 중요 한 내용을 담은 곡예 펀두(曲藝 偏頭)에 무불경(毋不敬) 조와 관계된다고 할 때 에 모든 예절과 기초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대개 우리 인류를 구분해 서 말할 때 耳目口鼻手足四肢 百體 라고 한다. 여기서 오장 육부(五臟 六腑) 가운데서 심장은 그 어느 곳 하나 관계 되지 않는 곳이 없다. 공경은 바로 마음 의 자세이다. 사람의 마음자세가 공경자 로 바탕을 이룬 자세로 눈을 뜨고 보면 보는 일이 밝을 것이요 귀로 들으면 듣 는 일이 밝을 것이다. 수용공(手容恭) 족 용중(足容重)하게 되면 두용직(頭容直) 과 일관되는 몸가짐으로 나타나게 된다. 수용공은 바로 공경하게 두 손을 맞잡은

공수를 말한다. 좌우양수(左右兩手)를 맞잡는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과 정신은 함께 수족 끝까지 감지하게 된다. 수족 끝을 감지하는 마음과 정성은 순간 집중 되고 신외로 산만하게 흩어지지 않게 된 다. 마음과 정신이 흩어지지 않고 내 한 몸의 부분 어느 곳 하나 빼놓지 않고 성 찰할 때에 그 모습은 어느 곳 하나 흩어 지지 않는다. 그러기에 차렷한 자세는 모 든 행동의 기본자세라 하는 것이다. 일찍 이 자사자는 중용을 통해서 구용구사를 말씀하였다. 여기서 겉으로 아홉 가지 용 모와 속으로 아홉 가지 생각을 말씀하신 것은 겉과 속이 일관하는 마음속을 강조 한 것이다. 이 마음에 중이 모든 예절법 도의 기본이라고 할 때에 예운(禮運) 편 에서 예필본어태일(禮必本於太一)이라. 예필본어천(禮必本於天) 이라 한 가르 침과 파(波)를 같이하게 된다. 대개 우리 인간(人間)들의 일은 시작도 인사 마침 도 인사이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실 내에서나 실외에서나 어느 때나 어디서 나 인사로 시종하는 만큼 읍 배례는 그 마큼 중요하고 그 만큼 엄숙한 일이다. 일찍이 김사계(金沙溪)선생은 가례읍관 (家禮揖寬)에서 다음과 같이 도설(圖說) 하였다.

①손가짐의 자세

부수도(父手圖):예수도; 무릇 손가짐 법은 왼손으로 바른손을 잡고 왼손의 엄 지가락과 작은 4손기락을 오른쪽 팔을 향 하고 오른쪽 손 엄지가락은 위로 4개의 작은 손기락은 왼쪽 팔을 향한체 가슴에 댄다. 가슴과 공수한 사이가 2寸이나 3寸 쯤 되게 하는 것이 손가짐 법 父手法이 다. 공수하는데 여인은 위와 반대로 한다.

②지읍도(祗揖圖)

사림광기(事林廣記)에는 무릇 읍을 할때의 그 발은 자연스럽게 무릎은 곧아도 그 몸은 구부리고 머리는 숙여서 눈이 신발머리를 보는 것이며 함의(咸儀)의 기준으로 하였다. 손을 무릎 위에 언지는 것은 아름다우나 무릎사이에 넣어서는 안 된다. 높은 어른 앞에서 읍을 할때에는 모름지기 손을 무릎을 내려가며 맞췄으면 손은 가슴 앞으로 올려서 공수를 한다. 그리고 읍을 할 적에 공수한 손전체가 가지런하게 해야 하며 엄지손가락 하나만 내던가 하면 가지런하지 않으면 존장(尊長)을 뵙는 예가 아니다.

③ 전배도(展拜圖)

무릇 하수(下手)하는 禮는 한번 읍하고 조금 물러나서 다시 읍하면서 구부려 엎드려서 양손을 가지런히 자리잡고 먼저 왼쪽 무릎을 꿇고 다음에 오른쪽 무

료을 꿇는다. 이것은 자리가 깔려있는 곳에서 절하는 기본자세이다. (제수 남에게 공경하는 태도로 머리를 땅에 닿도록 꾸벅거림)의 절을 했을 경우 다음의 일어날 때에는 바른발을 먼저 일으키고 양손을 무릎위로 한 채 다음에 왼발을 일으킨다.

④ 읍례도(揖禮道)

읍배례(揖拜禮)에는 上·中·下·拜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상례(上禮)의 경우; 읍을 하는 사람이 하관이거나 아랫사람 일 경우 존장을 향하여 공수가 눈높이와 같게 올리고 공손히 인사한다. 존장이나 상관은 답읍이 없다. ▲중례의 경우; 읍을 하는 사람이 하관이거나 아랫사람일 경우인데 몸을 약간 굽히면서 공수를 입 높이와 같게 올리고 인사하는 모습이다.

⑤ 배례도(拜禮圖)

앞에서 전배도 설명을 참고로 하여 절하는 기본자세를 살폈다. 절하는 모습이 기본은 같은데 계수배 계상배 돈 수배숙배 공수배등 등 다양한 용어로 기본되고 있다.

▲계수는 공수한 손으로 자리 짚은 다음 팔꿈치와 허리를 굽혀서 이마를 손등에 대고 오래 엎드려서 하는 배례이다.

▲홍례(凶禮)때에 많이 하는 절인데 계상(稽類,이마를 조아림)이라고도 하고 다만 절하는 모습이 이마받이를 땅에 다 가 하는데 그 모양이 없다. 즉 모양을 생 각지 않는다.

▲고두(叩頭;공경하여 머리를 숙임)라는 말은 절을 할 때 공수한 손을 땅에 대고 있던 모습에서 좌우수를 각각 벌려서 땅을 짚고 이마로 땅바닥을 두두리는 절이다.

▲공수(控手)는 절을 할 적에 머리가 손등에 닿지 않게 하고 곧 일어나는 절 이다.

▲숙배(肅拜)는 두 무릎을 나란히 꿇고 허리를 편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공수를 이마에 갖다 대는 절이다. 절중에 가장 경(輕)한 배례(拜禮)이다. 군중(軍中)에서나 부인들이 함이 정상이다.

⑥ 계수5배(稽首5拜)

이 절은 신하가 군상을 뵙는 예이다. 먼저 계수 4배를 하고 뒤에는 한번 하는 절이다.

⑦계수4배(稽首4拜)

백관들이 동궁을 뵙는 자리이다. ®도스재배(極萬更拜)

⑧돈수재배(頓首再拜) 이 절은 상관이 위에 있을 적에 드리는 절 이다. 이때의 상관은 공수재배로 답배한다.

⑨공수재배(控手再拜)이 절은 관품이 상등한 사이이거나 평교 사이에 상견하 는 절이다. 子孫이나 弟妹가 甥婿 등이 尊長을 뵈올 때 또는 生從 등이 師範을 뵈올 때에 하는 절이다.

安東權氏 耆老會長 權 貞 澤